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디모데후서 4:5-8, 요한계시록 7:9-17

이 땅의 영상으로도 천성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천성가는 길, 참 기쁨의 시간도 있었으나 그 길에 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꼭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해서, 십자가 바라봄을 통하여, 그 모든 안팎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천성에 이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적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노벨상, 아카데미상, 올림픽상, 우등상, 졸업상 등, 이 세상에서 주는 많은 상들이 있지만, 모든 상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상은 하늘나라 면류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들처럼 하늘나라의 면류관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딤후 4:7) 지갑, 집, 건강 등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혼자 아주 어렵게 살아갑니다. 원래 은퇴할 때는 잘 나가고 돈이 좀 있었는데 어떤 일에 손을 대었다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은 돈을 가지고 사는데, 딸이 앞으로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 집을 사려 하는데 아버지 돈을 보태 달라고 하였습니다. 딸에게 돈을 주고 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조금 지나자, 몸에서 냄새가 난다, 애들이 뭐라고 한다, 이게 뭐냐는 등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와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소송을 하여 돈을 돌려받도록 판결은 받았지만, 판결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도, 돈도,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잃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많아도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믿음을 지키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이 끝난 다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 하셨네
 매일 발걸음 마다 예수 인도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 마다 예수 인도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 마다 예수 인도 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천성에 들어갈 터이니,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믿음만은 꼭 지키며, 내 인생여정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천성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2. 함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모든 넘치는 은혜들을 감사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위엄스러움과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선물 중의 선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은 세상에 예배가 무수히 드러지지만 가장 장엄한 예배는 천성에서의 예배입니다. 이 천성의 예배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계 7:9-12) 하나님은 열방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늘에서 드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드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자기 민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천성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 다민족 선교, 열방 선교가 필요하고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 열방의 예배처소로 이곳이 비좁사오니 새 성전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달려와 천성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고 하늘의 장로가 요한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계 7:13) 장로 중 하나가 던진 질문이지만 주님이 던진 질문과도 같아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계 7:14) 하나님은 천성에 이르러 영원히 예배하는 자들과 서로 아는 자이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천성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과 우리들이 서로 아는 것이 천성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마 7:21-23)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드리고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합니다. 험한 천성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 땅에서 이 물음에 답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성 가는 길을 성실히 걷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2018년 사순절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한 번 답을 해보십시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 키우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모르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

1. 하늘나라 면류관을 받기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천성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드러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3. 천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4. 2018년도 사순절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